

개화기 시조의 國詩운동

- 대한매일신보 소재 시조를 중심으로

국윤주*

<차 례>

1. 머리말
2. 국시 시론
3. 국시의 수사학적 특질
 - 3.1 집단감정의 구조화
 - 3.2 독자투고, 응답의 유도과 담론의 내면화
 - 3.3 단순·과장의 영웅 형상
4. 맺음말

<국문초록>

개화기 신문과 잡지 등에서 연희, 향요, 가곡 등 통속적 대중문화의 개량을 주창하는 일련의 흐름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학사상적 평론 <천희당 시화(天喜堂詩話)> 분석을 통해서 국시의 시론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보았다.

첫째 국시는 국민언어의 정화(精華)이므로 국자(國字), 국어(國語)로 된 우리말 시체(詩體)여야 한다. 둘째 국시는 문약(文弱)한 개인적 정서를 배격하고 강무(強武)한 상무정신을 바탕으로 시계(詩界)의 국수(國粹)를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 국권회복운동의 가장 전위적인 신문매체에 게재된 시가라는 점에서 국시의 수사학적 특질은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전전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극대화되었음을 주목하였다. ‘계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이성적 교육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가의 전파와 향유에서는 시국에 대한 인식과 분노를 이끌어내고 개인의 감정을 총동하여 집단적인 감정으로 구조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대 대중들이 향유하던 통속적인 가곡과 민요에 대한 국가주의적 개량과 개혁을 선도적으로

* 목포대학교

구현한 국시운동의 프로파간다임을 알 수 있다.

또 대중 선전전략으로 독자들의 감정을 격발하고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널리 행해진 독자 기고문과 독자 투고 작품을 분석하였다. 독자 투고 작품들의 수사학적 특질은 신문 편집진이 제시한 원 작품에서 2~3개의 핵심적인 관념어를 반복하여 시의(詩意)를 집약하고 효과를 배가시키는 용사(用事)의 방법과 이를 통한 담론의 내면화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강무한 상무정신의 구현은 새로운 영웅의 형상화와 함께 타자의 설정을 통해서도 그 성격이 드러나는데, 선과 악의 핵심적 특질을 중심으로 단순화와 과장의 방법을 통해서 정형화된다. 특히 매도(罵倒)의 방법으로 타자를 구별하고 적으로서 위치를 규정하는 전략은 은유의 수사가 널리 이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1910년 이후 시조는 시대상황의 변화와 대한매일신보의 폐간과 더불어 지위와 역할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핵심어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시조, 국시(國詩), 수사학, 프로파간다(Propaganda), 감정의 구조화, 담론의 내면화, 용사(用事), 매도(罵倒)

1. 머리말

이 논고는 대한매일신보 소재 ‘詞藻’란 시조의 수사학적 특질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시조 작품들의 문학사상적 원리로 작동한 ‘國詩’운동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사상적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개화기 신문·잡지 매체에서 詩歌 운동의 중요한 양식은 시조, 가사 등의 고전시가 장르였다. 활자매체의 등장인 이 시대에 고전시가의 소통과

수용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주지하다시피 고전시가의 소통은 가창, 음영, 낭송 등의 구술적·구연적인 것이었다. 거기에 기록과 전송의 과정이 덧붙여지는데, 이는 주로 필사본 가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개화기 무렵에 대중을 상대로 새롭게 생겨난 매체-신문과 잡지-에 의해서 소통과 수용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었으며, 더 나아가 창작의 방식 또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 일명 신문시조¹⁾, 시평가사, 사회등가사라는 이름으로 색다른 특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당대에 상당한 대중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한매일신보는 문명개화와 국권회복의 담론을 특히 시조·가사 등 다양한 시가양식을 통해 전파했는데, 시조는 1906.7.21.에 <혈죽가 3수>, 1907.7.26.에 <혈죽가 십절>이 실린 이후 1908.11.29. 1면에 ‘詞藻(스조)’란이 마련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실리기 시작하여 1910.8.17.을 끝으로 모두 341수²⁾의 작품이 게재되었다.

한편, 개화기라는 시기 구분과 명칭에 대하여 최근 연구에서는 근대전환기, 근대계몽기, 나아가 애국계몽기라는 용어가 활발히 쓰이고 있다. 특히 애국계몽기³⁾란 용어는 소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905년부터 한일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까지로 시기를 압축하여 개화기 시가의

1) 시평가사, 사회등가사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데 비해서 ‘신문시조’라는 개념은 아직은 공론할 수준은 아니다. 작품의 소통환경이라는 차원에서 매체의 중요성이 작품의 존재양상과 특성을 압도하고 있어서 매우 특징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작품군에 대한 내외적으로 고유한 특질을 좀더 면밀히 연구하고 체계화 한 이후에야 비로소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한다.

2) 이형대, <계몽기 근대 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 2012.(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DB)

3) 최원식, 「제국주의와 토착자본」,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비평사, 1985. ; 권영민, 「개화기 애국계몽운동과 민족문학의 인식」, 『개화기 문학의 재인식』, 지학사, 1987. ; 고미숙, 「애국계몽기 시운동과 그 근대적 성격」, 『어문논집』33, 고려대학교, 1994. ; 이동순, 「애국계몽기 저항시가의 시정신」, 『민족시의 정신사』, 창작과비평사, 1996. ; 고은지, 「애국계몽기 시조의 창작 배경과 문학적 지향」, 고려대 석사논문, 1997.

대다수 작품군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국권회복이 주된 주제적 메시지라는 점으로 당대 문학사의 실상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근대계몽기⁴⁾라는 용어는 ‘애국’, ‘국가’의 자리에 우리 안의 ‘근대’ 혹은 ‘근대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선택된 용어로 보인다. 국가주의로 다 수렴되기 어려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정과 욕망을 근대 혹은 근대성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포괄하고자 했다. 봉건적 구습을 넘어서고 외세에 맞서 근대적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것, 세계 열강들을 따라 문명개화를 이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무지몽매한 인민들을 깨우쳐서(계몽) 당당한 국민으로 만드는 역할을 근대계몽기라 칭하는 시기의 문필가, 지식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사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몽’은 근대의 모든 미덕을 ‘문명’이란 말로 표현하고, 그 대책점에 ‘야만’을 상정한 서구적 근대화의 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명개화란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이상향의 모습이고, 계몽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인 동시에 이성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졌다.⁵⁾ 그러나 역사의 전면, 매체의 전면에서 이 점이 집중 부각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애국과 근대 계몽만이 이 시기의 전부라고 단정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시가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조선후기로부터 이어지는 시가의 향유와 소통, 전승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새로운 매체 환경-신문, 잡지, 극장, 유성기 음반, JODK-과 만나면서 대중들의 폭발적인 소비로 이어지기도 했다.⁶⁾ 또 한편 국민신보, 대한신문 등은 대한매일신보의 활약이 펼쳐지는 시기에 일진회와 친일내각의 기관지로서 한일합방의 정당성과 일본의 전범을 따라 문명국의 길로

4) 고전문학회 편,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지성사, 1983. ; 정출현, 「고전문학에서의 근대성 논의, 그 반성의 자리와 갱신의 계기」, 『국제어문』35, 국제어문학회, 2006. ; 이형대, 「계몽기 시가의 근대적 대응-근대계몽기 시가사 인식의 구도와 관련하여」, 한국시가학회 편, 『동아시아의 시가문학과 근대의 발견』, 2007.

5) 고은지, 「개항기 계몽담론의 특성과 계몽가사의 주제 표출양상」, 『우리어문』182, 우리어문학회, 2002, 224쪽.

6) 고은지, 앞의 논문, 35쪽.

나아갈 것을 주창하는 다양한 양식의 지식과 문필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경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개화기 시조가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게재되고 유통되던 1908년부터 1910년까지 식민지화의 과정은 노골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식민주의와 경쟁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담론을 설파하고 선전하는 대한매일신보의 ‘전략’이 시가 양식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새로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고는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이 시기에 매우 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게재된 일명 ‘신문시조’의 國詩 시론을 살펴보고 그 수사학적 특질을 규명하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 수사학적 특질에 대한 연구는 다른 접근에 비해서 미약한 편이다.⁷⁾ 최근 김영철이 ‘반복과 패러디 기법’을 중심으로 개화기 시가의 수사법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를 제출한 바 있다.⁸⁾ 그의 글에서도 밝혔지만 그간의 주된 연구의 흐름이 개화기 시가의 장르적 양식변이이나 전통시가와 현대시의 연속성을 논하는 표현·형식, 형상화 기법에 초점이 맞춰져 왔었는데, 수사법에 대한 연구는 개화기 시가의 본질 규명에 관건적 과제로 보인다.

수사학은 기본적으로 표현기교나 문체상의 문제를 떠나 작가의 세계관과 사상을 드러내는 미학적 意匠이다. 작가는 문체 및 표현 기법 등 수사학적 장치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철학, 문학적 의도를 전략적으로 표출한다. 따라서 수사적 裝置를 통해 작가의 기본의도와 사상을 엿볼 수 있⁹⁾는

7) 김영철, 「개화기 시가의 수사법 연구-반복과 패러디 기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39권3호, 2011, 257~258쪽. : 박애경, 「조선 후기, 개화기 시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방학지』146권,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9 참조.

8) “반복적 리듬이 통일적 질서를 주어, 회상과 환각의 학습효과를 제고하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하고 개화지식 보급과 문화사적 계몽에 효율적이었다. 개화기 시가는 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 이러한 반복의 효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패러디는 원작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정서나 사상면에서 이전의 서정적·낭만적 세계관에서 현실적·사실적 세계관으로 전환되어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영철, 앞의 논문, 257쪽.)

9) 김영철, 앞의 논문, 258~259쪽.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신문매체가 수사적 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문명개화와 국권회복으로 대표되는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선전(프로파간다, Propaganda)전략을 수행했다고 본다.

계몽담론이라는 용어에 비해서 선전, 프로파간다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¹⁰⁾ 때문인지 민족지의 대표격인 대한매일신보에 이러한 용어로 접근하는 연구는 아직 볼 수 없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선전기관으로서의 매일신보에 대한 이런 측면의 연구는 국문학계에서도 많이 제출되었다.¹¹⁾ 매일신보는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거의 유일한 한국어 매체로서 식민 통치의 모순을 은폐, 호도하는 데 앞장서고 일제의 침략정책 및 식민지 통치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 주된 논지다.¹²⁾ 식민지 공공영역으로서 매일신보가 지배적 공론장과 저항적 공론장을 담론적으로 연결하면서 식민통치의 동원을 위해 필요한 식민적 공공성을 구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즉 매일신보의 필진에 참여하였던 조선인 지식인층(장지연, 1914년)은 식민권력의 지배적 해석틀에 제한적이거나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발적 식민화 프로파간다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통 민족지로 평가되는 대한매일신보를 좀더 객관적 지위에 두고서 이 매체의 다양한 메시지가 시가문학 작품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그 가운데 단형의 시

10) ‘정치지배자의 조작의도가 삽입된 조작된 여론’, ‘합의의 조작’(월터 리프먼, 『여론』, 1922.)

11) 권보드래,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한국어문학연구』54집, 13~14쪽. ‘『서유견문』과 『독립신문』 이래의 어문 혁신에도 불구하고 한문의 문화적 위치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신보는 한문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조선인들을 지도하고 대표할 집단으로 조선귀족과 중앙 및 지방의 유림을 지목하고 이들이 조선인들 사이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담론적 지원을 한 것이다. 매일신보 1,2면에 한학 지식인의 만필이나 한시를 위한 난을 상설화하고 현상문예를 통해 한시를 공모하는가 하면, 유학과 한문학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12) 윤상길, 「식민지 공공영역으로서의 1910년대 매일신보」,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2011년 4월, 69쪽.

가 양식인 시조의 수사학적 특질을 분석함으로써 프로파간다 전략을 규명하는 試論적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시조 다음으로 풍성한 작품군을 보여주는 가사 양식, 기타 시가 양식으로 확대하여 시가장르를 통한 프로파간다 전략을 규명해 내는 것은 다음 단계의 목표가 되겠다.

2. 국시 시론

國詩는 1909년 11월~12월에 걸쳐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신채호의 <天喜堂詩話>에서 처음 명확히 정리되어 제시되었는데 당대의 신문 잡지 등에서 연회, 향요, 가곡 등 대중문화의 개량을 주창하는 일련의 흐름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문학사상적 평론으로 제시되었다.

凡風俗之移人이 導之以善則善호고 導之以惡則惡호야 一或成俗이며 難可猝變이나 然이나 現今我韓國內所習歌謠는 無非病風傷性之亂雜 則不可不改革이 亦一急務라 所謂妓女唱夫及 衢路兒童이 開口則所謂歌曲이 都是 수심가 난봉가 알으랑 흥타령 等類뿐이니 此何窮凶巨惡淫談悖說之成習也오 彼等愚賤之尋常行之를 不足掛齒라 호면 豈可曰導之以善之有也리오.

琴兮, <歌曲改良의 意見>, 대한매일신보, 1908.4.10.

‘금혜’라는 필명으로 게재된 ‘가곡개량의 의견’은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시가담론으로 당시 민간에서 널리 유행하는 노래에 대해 개량을 주문하는데 이후에 등장하는 담론들의 하나의 전범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심가 난봉가 알으랑 흥타령 등류’의 ‘가곡’이 모두 “풍속을 병들게 하고 성정을 상하게 하는 난잡한 노래 아닌 것이 없는 즉 불가불 개혁이 급한 일”이라고 하며 민요의 ‘窮凶巨惡’, ‘淫談悖說’의 성격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수심가, 난봉가, 알으랑, 흥타령 등은 당시의 통속적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민요들로 여전히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녀와 창부, 거리의 아이들이 모두 입만 열면 부르는 노래

들이라니, 대중들의 풍속을 개량하고 정신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대중매체의 시가담론은 이들을 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량’을 시도하고 주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대중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서 널리 확산되는데, 신문과 잡지 등에 글을 기고하고 이러한 매체를 편집하는 당시의 문필가, 지식인들 사이에 폭넓게 공유된 상식적 생각이다.

巷謠

인력거는 가자고 박퀴를 들들 구는데 백동전 업서서 나뭇가곳노야
 聞者-曰 恠哉라 此輩여 돈업는 놈이 인력거는 무섭허기지고 쫓쓸놈이 인
 력거야 제 順色으로 거리구식구가지 참어집번놈이로군
 此를 改良호야 曰 / 인력거는 가자고 박퀴를 들들구는데 **우리 國家의 文
 明進歩**는 期望이 杳然호고나
 이런 소리나 좀 호여보게 신동 머리 부러진 소리 호지말고
 <歌調-巷謠>, 『서북학회월보』18호, 1909.12.

위 인용문은 이 시기의 잡지에 실린 대중가요, 향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풍속의 교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가곡의 개량, 대중문화 개혁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웅건활발’한 정신의 자주 독립의 기상을 보여줘야 한다든가, 그도 아니면 국가의 문명개화를 노래하는 방식으로 ‘사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한 ‘통속가요’들이 개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속적’ 대중문화를 개량한다는 것은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통속성’을 개량·개혁하여 자주 독립과 문명개화 운동에 동참케 하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대중문화 담론이 시가 담론에서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어 문학사상적 원리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천희당시화>의 국시이다.

東國詩가 何오 호면 東國語 東國文 東國音으로 製호 者가 是오 (...) 詩란 國民言語의 精華라 (...) 帝國新聞에 일즉 國字韻을 懸호고 國文七子詩를 講賞호였스니 此七子詩도 或一種 新國詩體가 될가 曰 不可라 (...) 堂堂獨立호 國詩가 自有호거늘 何必支那律體를 依倣호야 態를 作호리오.

<천희당시화>, 대한미일신보, 1909.11.9.

위 인용문에서 정의되고 있는 국시의 개념은 자국문자의 사용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사의 흐름에서 보면 매우 획기적인 것이다. 동국시란 동국어, 동국문, 동국음으로 지은 것이라는 규정은 ‘한국문학이란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 경험을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이란 정의를 연상시킨다.¹³⁾ 우리에게도 당당한 국시가 있는데 왜 하필 중국의 율체를 모방하겠는가 하는 비판은 국시에 대한 민족어문학 중심의 주체적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첫 번째 개념의 분명한 정의다. 국시는 국민언어의 정화이기 때문에 우리말과 우리글로 된 것이어야 한다.

詩歌는 人의 感情을 陶融함으로 목적하나니 宜乎 國字를 多用하고 國語로 成句하여 부인 유아도 一讀에 皆曉하도록 주의하여야 국민 지식보급에 효력이 乃有할지어날, 근일에 各學校用歌를 聞한즉 한자를 雜用함이 太多하여 唱하는 學童이 其 趣味를 不悟하며, 聽하는 行인이 其 語義를 不知하니 是가 何等 效益이 有호리오.

愛國吟曰

제 몸은 스랑킨만. 나라 스랑 왜 못호노
國家疆土 업서지면, 몸 들 곳이 어디미노
출아리, 몸은 죽더리도, 이 나라는

丈夫吟曰

長劍을 膺히 들고. 宇宙間에 徘徊호니
萬古興亡은 胷中에 歷歷호고, 六大部洲는 眼下에 平平호다
아마도, 大丈夫 大事業은, 이 時代근가

<천희당시화>, 대한매일신보, 1909.11.06.

노래가 사름을 감동케함이 쏘흔 집도다 (...) 대더 노래가 호는거슨 사름의 감정을 건드려서 의기를 고등호야 흥기호고 분발케호는거신즉 그말은 간단 호야 알기 쉽게 호기로 주장호며 그 뜻은 간절호고 쾌활케호기로 힘을 써서 노래를 쓰라서 그 괴운이 감발케 흘거시어늘

13) 고은지, 『계몽가사의 소통환경과 양식적 특징』, 보고서, 2009, 39쪽.

〈학교에 쓰는 노래를 의론함〉, 대한매일신보 논설, 1908.7.11.

이른바 언문일치, 국어사용의 확대를 주문하는데, 國字와 國語를 多用함으로써 지식보급을 통한 국민 교육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읽을 수 있어야 쉽게 해득하고 감정을 감발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자와 국어를 많이 사용하여 ‘부인 유아도 一讀에 皆曉’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이성적 차원의 지식보급 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쓰이는 노래를 논한다 하니 위 논설이 말하는 노래 양식은 창가에 해당할 것이다. 노래를 통해 의기를 고동하고 흥기를 분발케하고 그 뜻은 간절하고 쾌활하게 하여 사람을 감동케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감정을 더 잘 감발하기 위해서도 국민 모두가 쉽게 시가를 읽고 해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시에 대한 국자, 국어 사용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논거로서 본격적으로 두 편의 시조를 언급하고 있다. 천희당시화는 시론의 전개과정에서 이와 같이 많은 실제 작품을 거론하며 시론의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때 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닌 고전적 작가의 작품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한시를 사례를 예로 들기도 하는데, 또 상당부분은 대한매일신보 스조란에 게재된 시조를 예로 들고 있다. 〈애국음〉과 〈장부음〉은 각각 1908년 12월 5일과 3일에 게재된 시조인데, ‘國語로 爲主하고 漢字는 若干 助入호야 老嫗도 可解’ 할 수 있는 것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천희당시화에서 개진한 국시론의 두 번째 개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强武, 곧 시에 내재한 尙武精神이다.

詩란 者는 國民言語의 精華라, 고로 强武한 國民은 其詩부터 强武하며 文弱한 國民은 其詩부터 文弱하나니, 一國의 盛衰治亂은 大抵 其 國詩에서 可驗할지요. 又 其國의 文弱을 回하여 强武에 入코즈 홀진디 不可不 其 文弱호 國詩부터 改良홀지라. 余가 近世 我國에 유행호는 詩歌를 觀하건디 太半 流靡淫蕩호야 風俗의 腐敗만 釀홀지니 世道에 關心호는 者가 汲汲히 其 改良

을 謀함이 可하며 又 其中에서 특히 民俗에 有益할 만한 詩歌를 募集해야 詩
界의 國粹를 保全함이 可할지나

김중서 朔風歌

朔風은 나무싹틔불고, 明月은 눈속에 찬디

萬里邊城에 일장검 집고서서

쉬과람 혼소리에 것칠것이 업서라

남장군 長劍曲

長劍을 썩여들고 白頭 올라보니,

大東天地에 腥塵이 즘겨서라,

언제나 南北風塵을 헛쳐볼까 호노라.

<천희당시화>, 대한매일신보, 1909.11.11.

국시로 호명된 시조는 한담, 방광, 음탕, 염퇴로 치부되는 문약한 개인
적 정서를 배제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감성으로 다름 아닌 강무한
상무정신을 맞아들인다. 이로써 시가(시조)에 대한 새로운 관습(양식)을
등장시켜내고 지배적 담론을 생산해내는 대중매체인 신문을 통해 대중들
에게 전파함으로써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에 호명되는 주체인 개인의 정
서를 혁신하고 집단적인 정서로서 강무한 國粹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두 번째 국시론의 강무한 정신을 보여주는 시조의 용례는 고시조
가운데서 뽑아 올렸다. 주목되는 바는 무인의 기개를 설파함으로써 시가
운동의 핵심 담론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
의식을 고취하는 데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詩界의 國粹를 보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또 한편 국시의 새로운 영웅관의 단면을 엿
볼 수 있는 바, 개화기 시조의 영웅적 인물이 이와 같이 주로 칼과 같은
무기를 들고서 홀로서도 적과 단호히 맞서는 비분 강개의 무인형 인물로
그려지는 단초를 볼 수 있다.

3. 국시의 수사학적 특질

3.1 집단감정의 구조화

유가적 전통에 입각한 도학적 시가관에서 최상의 가치는 성인의 도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개인적 덕성의 함양과 도덕적 완성으로 인간 감정의 자유로운 분출은 최대한 이성적으로 억제되었다. 시의 기능은 인간의 본래 性情을 유지한 상태로 인격을 도야하고 감정을 순화함으로써 나아가 풍속을 교화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인격을 함양시켜 도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감정의 자유로운 분출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

조선 후기로 오면, 점차 이러한 성정미학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情의 표출을 중시하며 진솔한 감정을 긍정하는 경향이 확산된다. 18세기 무렵부터 온유돈후의 미감에 의해 억눌려 왔던 정감 표출을 둘러싼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개화기 시가담론에는 정감의 표출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도 앞 시대의 것과는 다른 지향점을 보여준다.

詩란 者는 즉차 환호, 분규, 처량, 쇠음, 신음광제 등의 정태로 결성흔 文言이니 詩를 閉코즈흐면 是는 국민의 喉를 閉흐며 뇌를 破흠이니 此 | 엇지 可흐며 此 | 엇지 可흐리오(...) 詩가 人情을 感發함에 如此히 不可思議의 能力이 有흔지라(...) 勇悍 猖狂 猛奮 纖劣 或善或惡 或美或醜가 無非 詩歌의 支配力을 受흐는 바(...)

<천희당시화>, 대한매일신보, 1909.11.23.

시가 감정을 감발하는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효용론적 인식을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人情의 感發’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전 시대의 감정지향적 성향이 개인적 감정들을 해방시켜 자유분방한 감정의 표출 혹은 감정의 체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 시대의 시가담론은 감정을 자극하여 감발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

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개인의 감정보다는 국민 전체의 집단 감정, 시국에 대한 적극적인 발분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시는 “환호, 분규, 처량, 쇠음, 신음광제 등의 정태로 결성한 문언”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감정을 자극하고 촉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감정을 더 잘 감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쉽게 시가를 읽고 해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詩歌는 人의 感情을 陶融함으로 목적하나니 宜乎 國字를 多用하고 國語로 成句하여 부인 유아도 一讀에 皆曉하도록 주의하여야 국민 지식보급에 효력이” 있다는, 이른바 언문일치, 국어사용의 확대를 주문하는데, 그것의 필요한 이유의 출발이 사람의 감정을 도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國字와 國語를 多用함으로써 지식보급을 통한 국민 교육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읽을 수 있어야 쉽게 해득하고 감정을 감발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의 보급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은 일견 감정의 감발보다는 이성적인 차원의 깨우침이 우선할 듯하지만,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요소와 결부되어 있다. 國字와 國語를 많이 사용하여 ‘부인 유아도 一讀에 皆曉’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이성적 차원의 지식보급 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파간다에서 감정의 문제는 개인의 정서 표출이나 감정 체험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을 가지는 힘의 범주로 제시된다. 발분흥기한 감정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일심합력’되어 사회적 차원으로 축적되고 집단적으로 쉽게 전이된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 에너지가 집합적인 의지의 차원으로 전이되는 감정이 발분인 것이다.¹⁴⁾

따라서 ‘감정을 격발·도용함’은 선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된 시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이해된다. 정감의 분출은 개인적 차원의 감정이 아닌 국가주의적 차원의 집단적 정서인 애국적 열정으로 집약시키고 분출시키고

14)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 형성과정 연구」(서울대 박사학위, 1999), 100~101쪽.

있다는 점이 전시대와 구분되는 특징적 국면이라고 하겠다.

개화기 신문매체의 시가 향유에서 감정의 집약과 분출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구술적 소비방식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창가나 계몽가사는 비록 분량이 길고 읽는 형태일지라도 일정한 정형율을 유지함으로써 율독의 양상을 반영하였다. 노래에 가까운 율독은 개인을 넘어 집단적 읽기, 즉 들려주기를 통해 문맹 상태의 군상들을 매체의 의식 내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읽기 형식이었다. 이미 독립신문 때부터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신문 한 장을 돌려보았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은 대한매일신보가 발행되던 시기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신문을 읽어주던 관행은 일종의 제도로 정착되었는데 신문잡지종람소¹⁵⁾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계몽담론의 전파와 선전이 구술적 소통 상황에서 먼저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집단적으로 ‘감염’되어 갔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수용방식은 개인의 정서와 감정보다는 집단적이고 집합적 감정을 생성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신문의 집단적 구독이라는 소통상황이 감정의 구조화(emotional structuring)¹⁶⁾에 기여했을 것이다. 신문시조를 비롯한 시가문학의 감정적 정서적 호소는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 몸이 國民 되야. 國民義務 왜 모르리
 赴湯蹈火 흘지라도, 愛國心을, 일치 마소
 아마도, 獨立基礎, 愛國 二字
 <愛國心>, 대한매일신보, 1908.12.1.

學徒야 學徒들야. 學徒責任 무엇인고

15) “每洞에 광활한 家로 신문종람소를 정하고 석식 후에 일동 남녀노소가 각대 편석 하고(...) 有識한 幾人은 高座椅床하야 신문을 낭독한 후에 의미를 설명하면 내외국 사정과 古今世 形편을 無不通知하야 보통지식과 忠君정신이 자가발달하겠고 (...)”(<신문광포의견서>, 『서우학회월보』 9호, 1907.8.)

16) 정태진,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00, 323~325쪽.

日語 算術 안다 하고, 卒業生을 自處 마쇼
진실노, 學徒의 더 責任은, 爲國思想
<學生指南>, 대한매일신보, 1908.12.9.

국민의 의무가 애국임을 강조하고 불속으로 뛰어들지라도 애국심을 잃지 말라는 호소이다. 특히 신문시조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단연 청년과 학도, 청년들을 호명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지남>에서는 학도의 가장 큰 책임이 학업과 관련한 것보다 위국사상에 있음을 간명하게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호소한다.

프로파간다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이러한 감정적 호소이다. 이성적인 프로파간다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구현되기 어렵고, 프로파간다는 논증보다는 강력한 주장이나 확신에 찬 단정에 의해 호소력이 커지는 것이다.¹⁷⁾

國詩로言하면 ‘남훈전 달 밝은데 팔원팔기 거나리시고’ 한 閑談의 시뿐이며, ‘말 없는 청산 태도 없는 류수’란 放狂의 시뿐이며, ‘말은 가자고 네 굽을 땅땅 치는데 님은 잡고 락루한다’한 淫蕩의 시뿐이며, ‘풍파에 놀랜 사공 배 팔아 말을 사니’한 厭退의 시 뿐이요(...)

外面으로 시가 我國이 盛하다 할지나 내용을 察하면 我國이 시가 亡한 지已久라 할지라. 시가 망하였거니 국민의 사상이 何由로 고상하면 국민의 정신이 何由로 결합하리오.

<천희당시화>, 대한매일신보, 1909.11.25.

다양한 시가 양식들 모두를 포괄하여 개량을 시도하는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 가곡과 향요, 시조의 개량을 통해서 은연중에 감정의 구조화를 시도한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시가양식에 계몽의 기획대로 다듬어진 흥기분발의 감정값을 담아놓음으로써 대중들 스스로가 구조화된 감정으로 자신들의 감성을 맞추고 다듬을 거라는 의도를 보여준다.

17)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박순석 옮김, 『정치와 프로파간다』, 한울아카데미, 2009. 16쪽.

3.2 독자투고, 응답의 유도과 담론의 내면화

한편, 대중들의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의 감정을 격발하고 적극적인 호응과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좀 더 세련된 전략이 필요한데 신문매체가 흔히 이용한 방법이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담은 독자 기고문 혹은 투고문 등을 게재하는 방법이다.

논설을 불진디 풍력의 미혹흔 바 되지 아니하고 강력의 놀니는 바 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기개를 비양하고 국가의 테면을 존숭하며 전도와 방향을 밝게 하고 문명과 부강을 의론하여(...) 평론을 불닌디 혹 풍간도 하며 혹 나물히기도하고 폐단도 의론하며 구체방침도 말히디 울음강개하여 지스의 눈물을 흐르게 하며 격절비분하여 영웅의 담력을 고동하고 완고의 기습을 벽파하여 기명디경으로 인도하니 그 지성근축함을 가히 보리로다.

<미일신보는 춘추와 비홀만흠>, 동영싱 리익호, 대한매일신보, 1909.8.21.

위의 <미일신보는 춘추와 비홀만흠>은 독자 기고문이다. 논설, 잡보, 평론 등 대한매일신보의 핵심적인 편집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담고 있는 글이다. 위에서 평론은 시사평론으로 계몽가사를 말하는데 이를 읽고서 ‘울음강개’하며 ‘지스의 눈물을 흐르게 하며’ ‘격절비분’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독자의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시가양식으로써 평론이 독자를 감발하는데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독자들 또한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동영싱 리익호’가 ‘순수독자’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편집진의 주변인물이거나 편집진의 일원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가상의 독자로 꾸며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독자의 목소리’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다른 다수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감상과 평가 더 나아가 열렬한 지지와 호응은 동시대의 일반 독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개화기 대부분의 신문에서 독자투고 제도를 통해 독자의 목소리를 게재했는데 소위 ‘박수부대’, ‘녹음된 웃음소리¹⁸⁾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반응과 호응을 유도함으로써 비분강개의 집단 감정을 구조화하는 수사학적 전략이라고 하겠다.

세 만흔 송사리, 호응. 병魚 준치 흥.
日辰을 갈희여, 회 쳐서 먹을까, 아.
어리화, 도타, 호응. 知和者 도쿠나, 흥.
<不時肴>, 대한매일신보, 1909.2.16.

못된 송아치, 호응. 응두이 쌀 낫네, 흥.
屠牛한 불너서, 썩 내여 주어라, 아.
어리화, 도타, 호응. 肉膾를 쳐라, 흥.
海壹生, <敬和每日報不時肴曲>, 대한매일신보 1909.2.25.

병어술 준어술, 호응. 다 진히닛디, 흥.
회안주 남아서, 썩는 너 나노나, 아.
이구지구, 호응. 살어방문 네 업다, 흥.
漁潭散人, <敬和不時肴曲>, 대한매일신보, 1909.3.3.

시조 <불시효>는 송병준과 일진회를 성토했던 풍자와 격한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인데, 아래 <경화매일보불시효곡>, <경화불시효곡>은 <불시효>에 호응하여 독자가 창작·투고한 작품들이다. 송병준을 비롯한 일진회 무리를 지탄·풍자하고 이들을 물리치고자하는 소망이 음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발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일한 풍자 대상에 동일한 주제의식을 동일한 발상으로 변주한 어휘들-‘송사리’, ‘송아치’ ; ‘병魚 준

18) ‘박수부대’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고대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 공연에서 유래했다. 로마시대에는 극장이나 법정에서도 박수부대가 동원되었는데 이것이 관례로 굳어졌다. 현대에 와서는 오페라 극장, 정치 집회,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웃음과 환호성을 녹음해서 사용하거나, 스튜디오에 참석한 사람들을 웃기거나 환호하게 하기 위한 플래카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8b3546a> 참조.

치’, ‘병사술 준수술’-이 마치 민요의 ‘사설분담식 교창(交唱)’을 하는 듯
맑은꼴로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다.¹⁹⁾ 이 또한 독자를 감발시키고 독자의
호응을 이끌어낸 효용성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黃鐘이 우는 곳에. 萬物이 다 봄이라
和風細雨에, 滿山花柳 식 빛출 띄엿서라
우리도, 文明風潮에, 식 精神을
〈新精神〉, 대한매일신보, 1909.1.5.

南山에 봄이 드니. 萬物精神 식롭도다
太極旗는 家家樹오, 기明色은 處處花라
으희야, 紀念盃의 술 가득 부어라, 식봄 맞게
〈敬和每日報新精神曲〉, 대한매일신보, 1909.1.15.

문명개화의 당위성과 낭만적 이상을 그려낸 시조 <신정신>은 문명풍조
의 새 정신을 만물에 새 빛이 띄는 새 봄의 색조로 그려냈다. 단연 핵심
어는 ‘문명’과 ‘식 정신’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열흘 뒤에 <경화매일
보신정신곡>이라는 제목으로 <신정신>에 화답하는 시조에서는 ‘만물정신
식롭도다’, ‘기明色은 處處花라’라는 시어로 원 작품의 핵심적 관념어를
용사²⁰⁾의 방법으로 반복·변주함으로써 詩意를 집약하여 담론의 내면화
를 추동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독자투고 시가는 가사의 경우 전체 650여 편

19) 줄고, 「대한매일신보 소재 흥타령 시조 연구」, 『고시가연구』 20집, 한국고시가문
학회, 2007, 56쪽.

20) 用事: 典故나 사실을 인용하는 한시의 작법으로, 經書나 史書 또는 여러 사람의
시문에서 특징적인 관념이나 事迹을 취하여 詩意를 배가시키는 방법이다. 중국에
서는 宋代의 시풍이 산문의 흥기와 성리학의 발달로 인하여 시의 氣勢를 중히 여
기고 道를 위주로 하게 되면서, 원래 문장 수사법의 하나로 이용되었던 용사가 크
게 성행하게 되었다. 송대 시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고려나 조선에 있어서도 보
편화되어 용사를 모르고서는 시를 지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시작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9510)

가운데 95편이 익명과 실명의 형태로 참여한 독자들의 투고 작품이고, 시조의 경우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작품만 따져도 397수 가운데 44편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자투고 제도는 편집진의 프로파간다 의도를 구현하고 있는 독자들의 기고문을 수시로 게재함으로써 대중들 스스로가 선전 주체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와 구조화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3.3 단순 · 과장의 영웅 형상

시조의 양식적 특성상 영웅을 제시하고 노래하는 작품에서 영웅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단순하고 과장되게 그려지기 마련이다. 선악의 구도에서 악의 정형으로 그려지는 타자에 대해서도 영웅과 마찬가지로 단순화와 과장의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대한매일신보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영웅의 탄생에 대한 열렬한 기대이다. 그러나 개화기에 형상화되는 영웅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²¹⁾ 영웅 탄생의 간절한 바람이 대한매일신보에서 가장 극적으로 제시된 것은 <수군제일영웅 이순신전>을 통해서이다.

沿海국地에 血腥의 臭가 不絶호얏스니 檀君子孫의 遺耻가 極호도다 今에 往昔日本과 對抗함에 足히 我民族의 名譽를 代表호 만호 偉人을 求호건디 上世에 兩偉人이니 (一)高句麗廣開土王(二)新羅太宗王이오 近世에 三偉人이니 (一)金方慶(二)鄭地 三 李舜臣이니 凡五人에 止호얏노다

<水軍第一偉人 李舜臣>, 錦頰山人, 대한매일신보, 1908.5.20. (서론 부분)

1908년 5월 2일~8월 18일까지 1면 6단에 연재된 <수군제일위인 이순신> 서론의 일부분이다. 시조가 게재된 스조란과 바로 인접한 위치이다. 단군자손의 부끄러움이 극에 달한 가운데 지금에 일본과 대항해온 역사에

21) 고은지, 「애국계몽기 시조의 창작 배경과 문학적 지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7, 97쪽.

서 우리 민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표할 만한 다섯 위인이 곧 고구려의 광개토왕, 신라 태종왕, 김방경, 정지, 이순신 장군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견한 민족을 구원한 영웅 서사가 이순신에서 을지문덕, 강감찬으로 이어지는 역사전기물의 연재로 이어진다. 고종의 퇴위와 군대해산으로 이어지는 망국의 조짐 앞에서 민족적 영웅이 호명된 것이다. 이러한 영웅 서사의 영향이 시조에도 반영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작품이 이러한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다.

江山은 네와 𠵼건만은, 人物은 어이 變遷호노.
 絶世偉人 간곳업고, 無數창鬼 亂動한다.
 江山아, 泉蓋蘇文 乙支文德 速히 速히 産出호야, 新面目을.
 <江山아>, 대한매일신보, 1909.10.10.

천개소문(연개소문), 을지문덕과 같은 인물들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을 노래하고 있다. ‘절세위인 간곳업고’ 오로지 무수한 ‘창귀’만이 난동하는 혼돈의 시대에 어이하여 영웅은 나오지를 앓는 것인가, ‘속히 속히’ ‘출산’을 기원한다. 이때의 영웅은 ‘천개소문’, ‘을지문덕’처럼 그저 그 이름만으로 영웅이다. 구구한 설명도 형상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대한매일신보의 2면 잡보란에는 「地方情形」이라는 고정지면을 통해 전국 지방 곳곳의 소식을 실어 알렸는데, 기사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무장 활동을 펼치는 ‘의병’들의 소식이었다.

▲本月九日에 義兵若干이 高敞郡衙에 突入호야 郡主事를 結縛威脅호고 公錢八十八圓을 奪去호았다고 古阜稅務官의 電報가 度支部에 來到호았다고

▲義兵將李康年の 率호는 義兵의 形勢는 益益猖獗호다호고

「地方情形」, 대한매일신보 잡보, 1907.11.21.

이러한 의병관련 기사를 내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재함으로써 국가 존망의 상황에서 무력 투쟁을 벌이는 방방곡곡 각지의 무장 세력들

을 암묵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문필활동을 벌인다.²²⁾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영웅적 인물 형상에는 강인한 무인형의 인물이 과장된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게 된다.

大丈夫 이 世上에. 무슨 事業 急先務고
拾年에 갈어 둔 七尺劔이. 서리나날에 녹이 난다
뉘라셔, 壹聲霹靂에, 더 敵兵을
<丈夫詞>, 1908.12.10.

北風은 나무 擘해 불고. 明月은 눈 속에 찬데
七尺長劔 썩여 들고, 흰거름에 내다르니
到處에, 數업는 더 敵兵들, 쥐 숨듯시
<雪上劔>, 1909.1.13.

국시의 시론이 주창하는 강무한 상무정신이 잘 드러나는 위의 시조들에서 ‘대장부’는 영웅적 인물로 지처에 수없는 ‘적병들’을 ‘七尺長劔’으로 무찌르는 전형적인 무인의 형상이다. “子龍아, 말 급히 노아라. 拾萬大兵을 못지르자 / 長鎗은 어디 두고, 靑鋼劔만 두르논고 / 到處에, 敵兵의 머리, 秋風落葉”(萬人敵, 1908.12.6.)이라고 노래하는 시조에서는 급기야 삼국지의 용맹한 무장 조자룡을 호명하여 ‘장창’과 ‘청동검’으로 ‘추풍낙엽’과 같이 ‘적병’을 물리치는 무인의 호쾌한 형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강인한 무인형 영웅 형상에는 항상 武의 상징이자 강렬한 투쟁의지의 은유로 읽혀지는 무기들이 동반된다. 七尺劔, 七尺長劔, 長鎗, 靑鋼劔은 과장된

22) “대한매일신보의 의병기사는 총 3,988건수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1904년 9건, 1905년 31건, 1906년 71건, 1907년 1081건, 1908년 1612건, 1909년 979건, 1910년 205건으로 나타났다. 1908년이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1907년으로 27.1%, 1909년 24.6%, 1907년 18.3% 순이었다. 6개월을 단위로 하였을 때에는 1907년 하반기에 의병 기사가 가장 많다. 이는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상황을 반영한다.” (조영애,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의 의병 인식 비교』,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3, 8쪽.)

시어이지만 강렬하고 전투적 투쟁의지와 단호한 결의를 고취하는 수사적
意匠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의 시조에서 세 번째 영웅의 형상은 위에서 언급한 초월
적 존재로서의 영웅만 있는 것은 아니다.

青春을 莫虛度하라. 生存競爭 急하다
사람은 時機를 기다리고, 時機는 사람을 직촉한다
아마도. 時機를 만드는 者. 英雄인가
〈造時機〉, 대한매일신보, 1908.12.30.

全國의 靑年들아, 當然한 일 무엇인가.
國家에 對한 義務, 몸을 바려 흘지로다.
네부터, 살신成仁이, 英雄인더.
〈靑年歌〉, 대한매일신보, 1909.9.30.

〈造時機〉의 영웅은 ‘時機를 만드는 者’로 제시된다. 시기를 만드는 사람, 시
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생존경쟁’이 급한 때에 유리한 생존의 기회를 만들
어가는 이가 특히 청년 가운데서 그러한 자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靑年歌〉에서는 전국 청년들의 당연한 의무는 국가에 대한 ‘살신성인’, 몸을 버
려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자가 곧 영웅이라는 생각이다. 영웅은 누군가? 천부적
인 숙명을 부여받은 평범치 않은 소수의 선택받은 존재로서의 영웅은 아니다.
청춘과 청년 가운데서도 누구든 국가를 위해 일정한 의무와 능력을 발휘한다면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고 국권
을 회복하는 일에는 초월적 능력의 비범한 존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
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한 몸을 바치고 헌신하는 이가 진정한 영웅인 것이
다. 국가를 위해 당연한 의무를 다 하는 자, 영웅은 곧 국민인 것이다.

英雄이 사로 업고, 萬人一心 英雄이라.
歲月은 살 곳흔데, 旣 英雄을 求치 마쇼.
바라노라, 同胞들아, 躑躅 말고, 나가기를.
〈毋躑躅〉, 대한매일신보, 1909.12.4.

그래서 영웅은 따로 없으니 딴 영웅을 찾지 말고 ‘만인일심’으로 주저말고 나가라는 말이다. ‘생존경쟁’은 급하고 ‘세월은 살 곳’이니 주저할 겨를이 없다. 주저라는 말에 담긴 다급함과 막막함을 이겨내고자 제목마저 ‘무주저’, ‘주저하지 말라’이다.

그런가 하면 전혀 다른 경로를 거쳐 대중들로부터 영웅의 지위를 부여 받고 추앙되는 사례도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자살은 가장 인상적인 형태의 프로파간다 중 하나이다.²³⁾ 정치적 순교는 역사적으로 한 국가 안에서 결속을 다지고 종교와 같은 거대한 신봉자들을 결집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순교자는 곧 국가적, 민족적 영웅으로 재탄생한다. 국권 회복의 투쟁 과정에서 순결한 죽음은 정치적 결집과 분노, 증오의 기폭제로써 그 자체로도 이미 충만한 프로파간다이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후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의 죽음이 위와 같은 정치적 순교에 해당한다. 자결한 집에 자생한 대나무를 모티프로 하여 이듬해인 1906년부터 시조와 가사, 창가, 한시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가로 창작되어 신문에 게재되었고, 이에 따라 추모의 열기가 더욱 고조되었다.²⁴⁾

협실의 소슨 디는 충정공의 혈적이라
우로를 불식하고 방중의 풀은 쫓스
지금의 위국충심을 진각세계

충정의 구든 절기 미즈 디가 도여
누상의 홀노 소사 만민을 정동키는
인심이 비여잡초키로 독야청청

충정공 고든 절기 포은 선성 우희로다
석교에 소슨 디도 선죽이라 유전커든
허물며 방중에 눈 디야 일너 무삼
<혈죽가> 3수, 대한매일신보, 1906.7.21.

23)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박순석 역, 앞의 책, 233쪽.

24) 박애경, 「민충정공 담론과 <혈죽가>류 시가 연구」, 『우리어문연구』 34집, 우리어문학회, 2009, 162~163쪽 참조.

‘혈죽’의 이미지를 포은 정몽주의 ‘선죽’에 연결지음으로써 충절의 계보를 이어 절개의 상징으로 위치짓는다. 이는 매우 도식적이고 단순한 은유의 수사이지만 이러한 ‘혈죽 모티프’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군의 시가작품들에서 반복 변주됨으로써 확고한 은유로 자리잡는다. <혈죽가> 시조와 시가들은 민중정공의 담론에 대한 당대 대중들의 정감적 반응에 호소하는 동시에 국가주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프로파간다의 전략적 배치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영웅의 형상과는 대비적으로 적으로서 타자를 형상화하고 제시할 때는 프로파간다 전략의 하나인 罵倒의 방법이 활용된다. 매도는 ‘우리’와 구별되는 그들의 악성을 나타내는 핵심 특질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을 즉각적으로 정형화하고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다.²⁵⁾ 고전적인 서사구조에는 양극단의 선과 악이 존재함으로써 독자들이 선악의 인물과 표상을 대비시켜서 이상적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케 한다. 또한 악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 위에서 선의 존재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조에서 罵倒의 수사로 자주 활용된 방법은 욕설과 조롱에 가까운 마귀와 동물의 은유이다. 마귀의 은유는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었는데, 주로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와 친일세력들을 지칭하였다.

이 燈을 잡고, 호응. 房門을 박차니, 흥.
魍魎魍魎이, 줄횡랑호노나, 아.
어리화, 도타, 호응, 慶事가 낮고나, 흥.
<逐邪經>, 1909.2.9.

造化를 풀무 노코, 陰陽으로 불을 띄워.
斬邪劍을 민드러서, 左右手에 갈너 들고.
全國에, 가득흔 邪鬼들을, 풀 비드시.
<斬邪劍>, 1909.8.10.

25)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박순석 역, 『프로파간다』, 한울아카데미, 206쪽.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일곱 마리궂치 알뵈고 좃미우라.
 낮선 타쳐 사름 오게 되면 소리를 회회 치며 반겨랴고 닻다러 요리 납죽
 조리 개웃히되, 낮닉은 집안사름 보며는 두 발을 벗드디고 코쌀을 쩍그리고
 니싸리를 영성거리고 켁켁 짓는 일곱 마리 요 박살홀 개야.
 보아라, 근일에 새로 개 규칙 반포되야 개 임자의 성명을 개목에 치우지
 아니하면 박살을 당한다 하니, 自然 박살.
 <殺狗>, 1909.7.13.

국민신보는 이용구, 송병준, 최영년 등을 필두로 하는 대표적인 친일매체로서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저격하자 일본의 장례식에 소속 기자를 사죄단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이어서 1909년 12월에는 소위 <일한합방성명서> 라는 합방청원상소문을 국민신보에 발표했다. 여기서 ‘이때망량(魑魅魍魎)’, ‘邪鬼들’, ‘일곱 마리 요 박살홀 개’의 은유는 바로 국민신보와 같은 일제의 식민지화 책략을 설파하고 친일선동을 주도하는 매국노들을 지칭하는 수사이다. 육설에 가까운 매도를 통해서 단순화함으로써 혐오스러운 적으로 규정하고 정형화한다는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대한매일신보 소개 ‘詞藻’란 시조의 문학사상적 원리로 작동한 ‘國詩’ 운동을 살피고 수사학적 특질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당대의 신문 잡지 등에서 연회, 향요, 가곡 등 통속적 대중문화의 개량을 주창하는 일련의 흐름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학사상적 평론 <친희당시화> 분석을 통해서 국시의 시론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보았다. 첫째 국시는 국민언어의 정화이므로 國字, 國語로 된 우리말 詩體여야 한다. 둘째 국시는 文弱한 개인적 정서를 배격하고 強武한 상무정신을 바탕으로 詩界의 國粹를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학적 특질은 당대 국권회복운동의 가장 전위적인 신문매체라는

점에서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전전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극대화되었음을 주목하였다. ‘계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이성적 교육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가의 전파와 향유에서는 시국에 대한 인식과 분노를 이끌어내고 개인의 감정을 충동하여 집단적인 감정으로 구조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당대 대중들이 향유하던 통속적인 가곡과 민요에 대한 국가주의적 개량과 개혁을 선도적으로 구현한 국시운동의 프로파간다임을 밝혔다.

또 대중 선전전략으로 독자들의 감정을 격발하고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널리 행해진 독자 투고 작품들의 수사학적 특질은 신문 편집진이 제시한 원 작품에서 2~3개의 핵심적인 관념어를 반복하여 시의(詩意)를 집약하고 효과를 배가시키는 용사(用事)의 방법 활용되었다는 점과 이를 통한 담론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강무한 상무정신의 구현은 새로운 영웅의 형상화와 함께 타자의 설정을 통해서도 그 성격이 드러나는데, 선과 악의 핵심적 특질을 중심으로 단순화와 과장의 방법을 통해서 정형화된다. 특히 罵倒의 방법으로 타자를 구별하고 적으로서 위치를 규정하는 전략은 은유의 수사가 널리 이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본 논고는 정통 민족지로 평가되는 대한매일신보를 좀더 객관적 지위에 두고서 이 매체의 다양한 메시지가 시가문학 작품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가운데 단형의 시가 양식인 시조의 수사학적 특질을 분석함으로써 프로파간다 전략 규명을 시도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시조 다음으로 풍성한 작품군을 보여주는 가사 양식, 기타 시가 양식으로 확대하여 시가장르를 통한 프로파간다 전략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규명하게 될 때 개화기 시가의 실상과 본질을 명확히 위치지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서북학회월보』, 『서우학회월보』, 『태극학보』
이형대, <계몽기 근대 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 2012.(한국
연구재단 토대연구DB)
웹사이트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8b3546a>)
웹사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9510)

고미숙, 「애국계몽기 시운동과 그 근대적 성격」, 『어문논집』33, 고려대
학교, 1994.
고은지, 「애국계몽기 시조의 창작 배경과 문학적 지향」, 고려대 석사논
문, 1997.
_____, 「개항기 계몽담론의 특성과 계몽가사의 주제 표출양상」, 『우리
어문』182, 우리어문학회, 2002, 35쪽, 224쪽.
_____, 『계몽가사의 소통환경과 양식적 특징』, 보고서, 2009, 39쪽,
343쪽.
고전문학회 편,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지성사, 198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6-신문화 운동Ⅱ』, 2000, 66쪽.
국윤주, 「대한매일신보 소재 흥타령 시조 연구」, 『고시가연구』 2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 56쪽.
권보드래,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한국어문학연구』
54집, 13~14쪽.
권영민, 「개화기 애국계몽운동과 민족문학의 인식」, 『개화기 문학의 재
인식』, 지학사, 1987.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 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 1999, 100~101쪽.
- 김영철, 「개화기 시가의 수사법 연구-반복과 패러디 기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39권3호, 2011, 257~259쪽.
-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박순석 옮김, 『정치와 프로파간다』, 한울아카데미, 2009. 16쪽, 206쪽, 233쪽.
- 박애경, 「조선 후기, 개화기 시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방학지』146권,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9.
- _____, 「민중정공 담론과 <혈죽가>류 시가 연구」, 『우리어문연구』 34집, 우리어문학회, 2009, 162~163쪽.
- 윌터 리프먼, 『여론』, 1922.
- 윤상길, 「식민지 공공영역으로서의 1910년대 매일신보」,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2011년 4월, 69쪽.
- 이동순, 「애국계몽기 저항시가의 시정신」, 『민족시의 정신사』, 창작과비평사, 1996.
- 이형대, 「계몽기 시가의 근대적 대응-근대계몽기 시가사 인식의 구도와 관련하여」, 한국시가학회편, 『동아시아의 시가문학과 근대의 발견』, 2007.
- 정출현, 「고전문학에서의 근대성 논의, 그 반성의 자리와 갱신의 계기」, 『국제어문』35, 국제어문학회, 2006.
- 정태진,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연구」, 『영어영문학연구』제 26권 제1호,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00, 323~325쪽.
- 조영애,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의 의병 인식 비교」,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3, 8쪽.
- 최원식, 「제국주의와 토착자본」,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비평사, 1985.

<Abstract>

The National Poetry Movement
with Sijo during the Enlightenment Time
- Focusing on Sijo in *Daehanmaeilsinbo*

Kuk, Yun-ju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hetorical characteristics of sijo called Sajo in *Daehanmaeilsinbo*. Besides, the National Poetry Movement that served as a principle of literary ideologies for these sijo works is explored to determine how the ideological principle was actually realized in sijo, especially in *Daehanmaeilsinbo*, during the enlightenment time.

Most of all, *Cheonhidangsihwa*, a review based on literary ideologies that was the most systematic summary of a series of streams that advocated the improvement of vulgar popular culture involving plays, *hyangyo*, and songs in the then newspapers and magazines, was analyzed to divide the theories of national poetry largely into two categories: First, the national poetry is the essence of national language and should be a verse form of the Korean words and language. Second, the national poetry needs to reject literally effeminate personal emotions and preserve national superiority of poets' society on the basis of strong martialism.

It has been noted that the rhetorical characteristics were maximiz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propaganda in that it was the most avant garde newspaper in the then national sovereignty restoration campaign. Despite

the emphasis of rational education to perform the task of the times, enlightenment, it has been found that the focus was given to eliciting awareness and anger at the situations, inciting personal emotions, and structuring them into collective ones in spreading and enjoying new poems. This is a propaganda for the national poetry movement that took the lead in realizing nationalistic improvement and reform of popular and folk songs enjoyed by the then public.

Readers' contributions widely accepted to incite their emotions and induce their positive sympathy as a strategy for public propaganda were analyzed. The rhetorical characteristics of readers' contributions could be found in the quotation to give intensive poetic meanings and double the effects through repetitive use of two or three key conceptual words from the original work presented by the newspaper editor and in the resultant internalization of discourse.

Realization of strong martialism can also be found in embodiment of a new hero and in presentation of others and may be standardized through the methods of simplification and exaggeration based on the key characteristics of good and evil. The metaphor of a war was widely used for the strategy to differentiate others and position them as enemies as a means of condemnation.

Since the year 1910, sijo has gone through new changes in its position and roles due to the changes of temporal situations and discontinuation of Daehanmaeilsinbo.

Key words : Daehanmaeilsinbo, sijo, national poetry, rhetoric, propaganda, emotional structuring, internalization of discourse, quotation, condemnation